

## 마르크스와 미래의 기념비들

4강 「공산주의자 선언」

: 공공연하고, 위험하고, 유쾌한 선언

강사 : 고병권

## 1. 들어가며

1845년 맑스는 파리에서 추방되었고, 프로이센 국적까지 포기했기에 난민이 되었다.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브뤼셀로 갔다. 브뤼셀에서 그는 엥겔스와 함께 움직였다. 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혁명조직에 관여했다. 다양한 공산주의 운동가들을 만났고(이들 중에는 당시에는 해체된 <의인 동맹>der Bund der Gerechten(League of Just)<sup>1)</sup> 출신 운동가들이 많았다), 이들을 통해 다른 나라의 운동조직과도 연결되었다(둘은 각국의 <의인동맹>을 비롯해서 여러 운동 결사체들과 정기적 정보교환을 위해 만든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Communist Corresponding Committee의 창립위원이 되었다).

<의인동맹>의 구성도 그랬지만 맑스가 자기 운동의 기반으로 삼은 것은 노동자들, 특히 독일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었다. 그는 브뤼셀에서 이 노동자들에게 강연을 했고<sup>2)</sup> 또 이들의 기관지에 글을 실었다<sup>3)</sup>. 그가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혁명조직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도 런던의 <독일노동자교육협회><sup>4)</sup>였다. 맑스의 촉구대로 런던의 <의인동맹>은 브뤼셀의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와 함께 <공산주의자동맹>을 결성했다(맑스는 브뤼셀 지부의 지부장에 취임했다).<sup>5)</sup>

<공산주의자 동맹>의 결성대회가 1847년 6월 런던에서 열렸는데 이때 엥겔스는 강령의 초안

- 1) <의인동맹>은 <추방자동맹>에서 갈라져나온 조직이다. <추방자동맹>은 망명한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최초 조직으로 1834년 파리에서 결성되었다. 대체로 중간계급의 지식인들이 많았다. 여기서 독일출신 노동자들이 떨어져 나와 1836~38년에 만든 비밀정치조직이 <의인동맹>이다. 1839년 파리에서의 폭동이 실패한 후 지도자들 몇몇이 탈출하여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등에 지부가 생겨났다. 설립 당시에는 빌 헬름 바이틀링과 프루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해체된 이후 의인동맹 출신 운동가들은 맑스와 엥겔스가 주도하는 <공산주의자동맹>에 편입되었다.
- 2) 맑스는 노동자들에게 ‘임금노동과 자본’에 대한 일련의 강의를 했다. 당시 맑스와 함께 파리에서 브뤼셀로 추방된 바쿠닌은 한 러시아 친구에게 보낸 편지(1847. 12. 28)에서 맑스의 이런 활동을 비난했다. “맑스가 지식인들의 모임보다는 직공과 노동자들의 모임을 더 좋아하고, 착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을 우쭐거리게 만들 뿐인 추상적인 이론들과 모호한 경제적 학설로 그들을 망쳐놓고 있다고 불평했다. 바쿠닌은 못배우고 절망적일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 직공들이라든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결정적인 투쟁의 국면에서 상황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어 보이는 영양실조 상태의 우중충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소집단들을 상대로 강연이나 조직화를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이사야 벌린, 안규남 옮김, <<칼 마르크스 - 그의 생애와 시대>>, 미다스북스, 2002, 276쪽)
- 3) 당시 상황에 대한 맑스의 회고. “우리는 동맹의 비밀 가르침을 표상하는 영국-프랑스식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독일철학 등의 혼합물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 구조에 대한 과학적 통찰을 동맹이 견지해야 할 유일한 기초로서 제시하며, 이를 대중적 형식으로 설명하고, 이 과업은 유평파적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사회적 변혁의 역사적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 것임을 지적하는 팜플렛들을 인쇄하고 석판으로 찍어냈다.”(F. Mehring, tr. by E. Fitzgerald, *Karl Marx*,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3, p.138 재인용). 하지만 이 팜플렛들 대부분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 4) <의인동맹>의 지도자 중 일부가 1839년 5월 런던으로 탈출해서 만든 조직이다. 식자공, 제화공, 시계제 조공 등 다양한 직공들로 이루어진 독일 출신의 이주노동자 그룹이었다. 1843년 엥겔스가 런던에 갔을 때 이 단체의 중심인물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맑스가 엥겔스가 <의인동맹> 후신으로 만든 <공산주의자동맹>과 곧바로 제휴를 맺었으며, 이후 맑스가 런던 생활을 할 때도 중요한 활동기반이 되었다.
- 5) 맑스의 전기작가 이사야 벌린은 이 브뤼셀 시기부터 맑스의 개인사는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전까지의 맑스의 개인사는 한 개인이 살면서 부딪치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부터 맑스의 개인사는 유럽의 사회주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 맑스의 개인사에 대한 서술은 어느 정도는 유럽의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서술일 수밖에 없다.”(이사야 벌린, 위의 책, 273쪽).

을 제출했다(<공산주의 원칙들>). 이 초안은 공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런던에서 2차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맑스와 엥겔스가 모두 참석했으며 토론이 거의 열흘 간이나 이어졌다. 1차대회와 2차대회의 차이는 각 대회에서 채택한 규정에서 드러난다. 1차대회에서 <공산주의자동맹>은 “소유의 공유이론을 전파하고 이를 가능한 빨리 도입해서 인류를 해방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했지만, 2차대회는 “동맹의 목표는 부르주아지 타도, 프롤레타리아트 지배, 계급적대에 기초한 낡은 부르주아사회 철폐, 계급과 사적 소유 없는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고 천명했다. 대표들은 이 기본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했고(맑스는 이 2차대회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시켰다.<sup>6)</sup> 이 새로운 신조에 적합한 선언문 작성을 맑스와 엥겔스에게 의뢰했다. 오늘 이야기할 <<코뮤니스트 선언>>(이하 <<선언>>)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본격적으로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목에 대해 한두 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라는 말이다(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코뮤니즘’을 ‘공산주의’로 옮기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제외하자). 왜 <<선언>>은 ‘사회주의 선언’이 아니었는가.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이름을 포함해서) 왜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택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친절한 답변이 있다(1888년의 영어판서문). 그에 따르면 1847년 당시 ‘사회주의자’라는 말은 한편으로 “공상적 체계의 추종자들”(오웬주의자나 푸리에주의자)을 가리켰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 책들을 써내는, “자본과 이윤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고 사회적 폐해들을 제거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잡다하기 그지없는 사회적 돌팔이 의사들”을 가리켰다. “두 경우 모두 사회주의자들이란 노동자 운동의 바깥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교양있는’ 계급의 후원을 구한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당시 노동자들 중 “사회의 총체적 개조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이들도 있었는데, 비록 거칠었지만 “중요한 지점을 포착”한 이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로 불렀다. “1847년에 사회주의는 중간계급의 운동이었고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이었다. 사회주의는 적어도 대륙에서는 ‘상류사회적’ 이었고, 공산주의는 바로 그 반대의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과업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명칭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선집17), 380)

또 하나, 제목에 들어 있는 ‘당’에 대하여. 내 생각에 <<선언>>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당’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정당’과는 다르다. 달리 말하면 <<선언>>에서의 ‘공산주의당’은 대의제 정치의 핵심기구 인 오늘날의 ‘정당’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운동을 ‘정당정치’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sup>8)</sup>.

6) 당시 회의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2차대회 토론에 참석했던 재단사 레스너의 회고록을 보면 맑스가 얼마나 큰 신뢰를 얻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맑스는 타고난 민중의 지도자였다. 그의 연설은 간결했고 그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으며 매혹적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문장이 하나의 생각이었으며, 모든 생각이 설명의 사슬 가운데 꼭 필요한 고리였다. 맑스에게서는 풍상가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바이틀링 시대의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당 선언>>의 공산주의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맑스가 사회주의 사상을 체현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프랜시스 윈, 정영목 옮김, <<마르크스 평전>>, 푸른숲, 2002, 166쪽, 재인용)

7) 본문과 주석에서 ‘선집’이라고 약칭한 것은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박종철출판사, 1990)을 가리킨다.

8) 참고로 나는 프랑스에서 좌파정부의 실패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던 푸코가 가진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는 “연구해야 할 대상은 당이 당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가 보기에 “당은 19세기 발명품 중 가장 불길한 것”이었다(디디에 에리봉, <<미셸 푸코>>, 그린비, 2012, 531쪽). 내 생각에 ‘당’은 그 자체로 이미 ‘예비 국가’이고(당은 일종이 ‘예비내각’이다), 부르주아 대의정치의

일단 <<선언>>에서의 맥락을 보면 ‘당’으로 번역된 ‘Partei’은 어떤 ‘부분’, 특히 전위적인 ‘부분’을 뜻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공산주의자 동맹>을 가리키며<sup>9)</sup> 넓게는 공산주의자들 일반을 가리킨다(영어판 제목인 ‘Communist Manifesto’는 이런 맥락에서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 스스로도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 정당들에 대립되는 특수한 당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선집1, 412). “공산주의자들은 실천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노동자 정당들 중에서 가장 단호한 부분(Teil), 언제나 운동을 추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다.”(선집1, 413).

## 1. 선언 –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선언>>의 중요한 면모는 우선 ‘선언’이라는 형식 자체에 있다. ‘선언’은 생각의 ‘공공연한’ 표방이다. <<선언>>의 공공연함, 감춤없음은 매우 공격적이고 심지어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다. <<선언>>의 첫 부분을 보자. 이들은 유럽의 지배세력들이 두려워하는 ‘유령’으로서 공산주의자가 자신들임을 ‘자 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지금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전세계 앞에 공공연하게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지향을 표명하여 공산주의의 유령이라는 소문에도 당 자체의 선언을 대치시킬 절호의 시기이다.”(선집1, 399) 그리고 <<선언>>은 그 끝에 이르러서 공공연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를 감추는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지 금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의 무력적 전복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선 집1, 433)

이런 공공연함은 몽상적 젊은이들의 치기와는 다르다. 명백히 그것은 운동에 대한 소신이였다. 이 점에서 <<선언>>은 한 해 전에 작성된 엥겔스의 <공산주의 원칙들>과 대비된다. <공산주의 원칙들>에서 사용된 ‘문답법’은 전형적으로 프랑스의 지하분파들이 애용하던 형식이였다. 문답집을 숙지하는 것은 회원의 통과 의례였다. <공산주의자 동맹>도 일종의 비밀 정치 조직이었기에 이런 문답집을 관례대로 쓰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맑스도, 엥겔스도 이런 지하분파적인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컨대 맑스는 <독일노동자협회>에서의 공개적 활동을 훨씬 더 좋아했다. <독일노동자협회>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천문학, 역사, 지리 등에 대한 수업도 이루어졌으며, 연극, 노래, 낭송, 어학, 필기, 댄스 교습도 이루어졌고, 도서도 비치되고, 공동주거와 공동금고도 시도되었다.<sup>10)</sup> 노동자협회는 만들어지자마자 2주만에 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맑스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공개적인 일은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sup>11)</sup>

사실 ‘선언’이라는 형식을 먼저 제안한 것은 엥겔스였다. 그는 <<선언>>을 작성하기 전 맑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쓴 <공산주의 원칙들>의 형식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sup>12)</sup>. “신앙고백

핵심 장치이다. ‘당’을 통해 국가를 넘어선다는 것은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를 작동시킨다는 말 처럼 이상한 것이다.

9) 이 <<선언>> 자체가 <공산주의자동맹>의 자기 선언이기도 하고, 실제로 <<선언>>의 저자들은 이 <공산주의자 동맹>을 ‘당’이라고 불렀다(엥겔스의 경우, <쾰른에서의 공산주의자 재판>(선집2, 395)).

10) <<맑스사전>>, 도서출판b, ‘노동자교육협회’ 항목.

11) 프랜시스 윈, <<마르크스평전>>, 159쪽.

(Glaubensbekenntnis)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네. 내 생각에 우리는 [그런] 교리문답의 형식을 버리고, 그것을 <<공산주의자 선언>>Kommunistisches Manifest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 그는 신앙고백을 하는 교리문답집 같은 형식보다는 공공연한 ‘선언’이 자신들이 시작한 운동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실제로 <<선언>>을 쓸 때 즈음 작성한 <1847년의 운동들>이라는 글에서 도, “우리들, 즉 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지의 투쟁을 기꺼이 지원할 것이라고, 하 지만 “암암리에 부르주아의 전복을 준비하면서” 그럴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다. “우리는 카드를 다 보여 주고 카드 놀이를 할 수 있다.”(선집1, 444)

이것은 맑스의 태도이기도 했다. 맑스의 공공연한 태도는 쾰른 정부가 <<신라인신문>>의 폐간을 명했을 때 쓴 글에서도 일관된다<sup>13)</sup>. 그는 “<<신라인신문>>의 최근호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경멸, 폭력 적 전복, 사회공화국의 실시 등에 대한 선동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 어이없다는 듯 이렇게 대꾸하고 있다. “우리의 경향에 대해 정부는 몰랐다는 말인가? 우리가 배심원들 앞에서 오늘날 ‘신문의 임무는 현존하는 것들의 모든 토대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 최근호에 들어서야 비로소 말했다고? 유럽 운동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서술 방식 전체를 꿰뚫는 ‘붉은’ 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둔감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솔직하고 확실한 언어로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맑스는 예전의 기사들을 환기하며 이렇게 확인했다.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견해를 숨기는 것을 쓸 데 없는 일이라고 간주했다.”(cf. 맑스의 테러리즘 비판).

철학사에서 ‘감춤없는 삶’, ‘숨김없는 삶’은 참된 삶의 기본적인 특징이었다. 플라톤은 ‘진실하다’는 것을 수치스러운 행동이 없는 행동, 언제나 타인의 보증과 보장 아래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 했고, 세네카 역시 진실한 삶이란 타인의 시선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맑스와 엥겔스의 공공연함에는 다른 면이 있다. 이들은 타인 혹은 신의 시선 아래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노출은 앞서 말했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뻔뻔하다(cf. 공격적 실천으로서 노출). 이들은 자신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지배체제의 추함을 폭로한다. 철학사에서 이들과 가장 비슷한 이를 찾는다면 견유주의자들이 아닐까 싶다.<sup>14)</sup>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칸트가 말한 ‘계몽’의 정신과도 통할 것이다(이성의 공적인 사용). 공적인 장에서 제약 없이 자신의 견해를 ‘감히’ 펼치는 것, ‘감히 알려하고’(Sapere aude), 감히 말하는 것. <<선언>>에는 그런 정신이 들어 있다.

## 2. 유행 -공산주의라는 유행이..

12) Engels an Marx in Brüssel (Paris, 23/24. November 1847). MEW 27, S. 107

13) K. Marx, 최인호 옮김, <전서 법규에 의한 <신라인신문>의 폐간>(1849. 5. 19)(선집1, 574-575쪽).

14) 사실 견유주의자들의 ‘감춤없음’, ‘공공연함’은 단지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도 발가벗었다. 식사부터 섹스까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들은 공적인 장소에 그대로 드러내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의 발가벗음, 공공연함은 그 목격자를 공격한다. 그 목격자들의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위선 들을 까발리기 때문이다. 감춤이 없는 삶이 일반적인 철학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의미했지만 견유주의자들에게는 ‘자연 안에는 어떤 부끄러워할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말그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

<<선언>>의 두 번째 특징은 독특한 시간성이다. <<선언>>에는 시간의 어긋남이 있다. 벌린의 표현을 빌자면, <<선언>>은 “장치 복수에 나서게 될 미래의 세력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름으로 현존 질서를 고발”하고 있다<sup>15)</sup>. 현재의 선언이지만 선언 주체는 미래 존재이다. <<선언>>의 문장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언’이 당대의 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트’로서 호명,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상의 어긋남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유령’이다<sup>16)</sup>. ‘아직’ 제 몸뚱이를 갖지 못한 채로 ‘미리’ 와 있는 존재(물론 반대 경우도 있다. <<브뤼메르 18일>>에서 말하는 ‘이미’ 사라진 몸뚱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재에 출몰하는 ‘로마시대의 유령’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사실 이 텍스트가 아니어도 맑스는 여러 곳에서 ‘유령’ 이야기를 꺼낸 바 있다. <<독일이데올로기>>에서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 관계를 ‘환영’이나 ‘유령’, ‘망령’ 따위로 변형시키는 청년헤겔파를 비판한 바 있고(선집1, 220), 방금 언급한 <<브뤼메르 18일>>에도 유령이 등장하며, <<자본>>의 상품편에도 유령은 나온다(맑스는 ‘가치’를 ‘유령적’인 것이라며, ‘감각적인 초감각적 사물’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가치형태란 한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의 몸을 빌어 유령적으로 마주 선 것이다). 하지만 <<선언>>의 유령은 ‘미래적인 것’의 ‘현재적 출몰’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선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의 성스러운 사냥을 위하여 동맹하였다. 교황과 짜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경찰들이.” 지배자들은 반대당파들에게는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댔다. 그런데 여기서 <<선언>>의 저자들은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한다.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들로 부터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산주의는 한편으로 ‘아직’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문으로서, 유령으로서 ‘이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선언>>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령의 그 몸뚱이를 자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언>>은 공산주의자를 자임하는 것이지만[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다], 미래 시제로서 현재에, 다시 말해 유령의 시점에서 현재의 신체들에게 공산주의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sup>17)</sup>. 데리다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사실확인적인(constative) 서술이 아니라, 수행적인(performative) 방식의 약속이자 촉구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때가 왔다! 우리는 징후[신호]를 읽었다! 첫 강의에서 나는 ‘미래의 기념비’를 ‘과거의 기념비’와 대비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래의 기념비’라는 말을 ‘과거의 반복’과 구분해서 ‘미래의 반복’으로 읽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를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미래의 반복으로 읽는 것. 이때 현재는 미래의 ‘흔적’이 된다. 미래의 흔적. 이것을 우리는 ‘조짐’ 내지 ‘징후’라고 부르는데, 이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의 마지막 절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거슬러 칸트가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다시 말해 인류의 미래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찾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기도 했다.

15) 이사야 벌린, 위의 책, 279쪽.

16) 맑스의 ‘유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마르크스의 유령들>>(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7) 참고.

17) 맑스는 <<브뤼메르 18일>>에서 ‘부르주아 혁명’인 18세기 혁명과 달리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미래로부터 자신의 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9세기 사회혁명은 과거로부터는 그 시를 얻을 수 없고 오직 미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 19세기 사회혁명은 과거에 대한 모든 미신을 떨쳐 버려야만 스스로 시작할 수 있다. 이전의 혁명들은 자기자신의 내용에 관해 자기자신을 속이기 위해 세계사를 회상할 필요가 있었다. 19 세기의 혁명은 자기자신의 내용 가까스로 바짝 다가가기 위해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시신을 묻게 해야 한다.”(선집2, 290)

18)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206쪽.



지금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가.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선언>>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 앞에 공공연하게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지향을 표명하여 공산주의라는 유명이라는 소문에 당 자체의 선언을 대치시킬 절호의 때(hohe Zeit)이다.” 그들은 ‘징후’(증상)를 [미리] 읽어냈고[prognosis], 도래하는 것의 시각에서 현 재에 대해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다. 이제, 지금, 미래에서 온 ‘유령’에 현재적 ‘신체’를 제공할 때이다.

### 3. 현대 - 모든 단단한 것들은 녹아사라지고..

<<선언>>은 현대성(modernity)의 정체를 드러낸다. ‘현대’는 부르주아지의 시간, 부르주아지가 구 축한 세계의 시간이다. 오스본(P. Osborne)이 지적한 것처럼<sup>19)</sup>, <<선언>>의 제1부의 상당부분에서, 단락들의 주어가 연속해서 ‘부르주아지’다. 부르주아지는 <<선언>>이 그리는 현대세계 제1부의 주인 공들인 셈이다. 세계의 주인공,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자로서 부르주아지!

그렇다면 ‘현대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성’이다. 현대가 고대나 중세와 다른 특정한 시간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대야말로 시간성(역사, 템포 등등)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현대적’이라는 뜻의 라틴어 ‘모데르네’(moderne)는 ‘새로운’(new)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가 단지 ‘새로운 시대’라는 뜻은 아니다. 모든 시대는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새로운 시대’일 것이다.

새로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것은 다른 시대에 비해, 현재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움’이 가치를 부여받는 시대라는 뜻이다. 새로운 것이 더 나은 것이고, 새로운 것이 더 발전된 것이라는 생각. 이 때문에 ‘현대’는 역사주의(진보적 혹은 진화적 역사관) 시대이다. 현대의 진보의 시대이고 혁신의 시대이며 업적의 시대이다. 그리고 그 진보와 혁신의 주체가 부르주아지다(파우스트적 인간으로서 부르주아지). 이전의 다른 지배 계급들에게는 낡은 생산양식의 유지가 존립의 제1조건이었던 데 반 해, 부르주아지에게는 끊임없는 진보와 혁신이 존립의 제1조건이다(선집1, 403).

현대성의 특징을 요약하는 <<선언>>의 문장을 보자. “생산의 끊임없는 변혁, 모든 사회 상태들의 부 단한 동요, 항구적 불안과 격동이 부르주아 시대를 이전의 다른 시대와 구별시켜 준다. 굳고 녹슨 모든 관계들은 오랫동안 신성시되어 온 관념들 및 견해들과 함께 해체되고, 새롭게 형성된 모든 것들은 정착되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 모든 신분적인 것, 모든 정체된 것은 증발되어 버리고, 모든 신성한 것은 모독당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의 생활상의 지위와 상호 연관들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선집1, 403) 요컨대 모든 경계들(지역적, 신분적, 민족적)이 유동 화되고(유동성, 액체성)로서의 현대성), 모든 신성한 것들이 그 주술적 성격을 잃는다(탈주술성, 신성한 후광(Heiligenschein)의 상실로서의 현대성). <<선언>>은 이런 면모들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 어 살피고 있다.

먼저, 생산과 소비[경제] 영역에서. 생산과 소비는 서로를 자극하며 대공업의 발전과 세계시장의 창출을 가져왔다(부르주아지는 이 변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산물이기도 했다(선집1, 402)). 생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려는 욕구는 부르주아지를 전 세계로 내몬다. 생산도구들의 혁신과 교통의 발달은 “모든 민족들을, 가장 미개한 민족들까지도 문명 속에 끌어”넣었다. “부르주아지

19) P. Osborne, 고병권-조원광 옮김, <<How to read 마르크스>>, 웅진지식하우스, 2007.

의 상품의 짝 가격은, 부르주아지가 모든 만리장성을 쏘아 무너뜨리고<sup>20)</sup>, 외국인에 대한 야만인들의 완고하기 그지없는 증오심을 굴복시키는 대포이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민족들에게 망하고 싶지 않거든 부르주아지의 생산양식을 채용하라고 강요한다. …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선집1, 404)

둘째, 정치의 영역에서.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집중시키고 인구를 집중시키고 소유를 집중시킨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중앙집권”을 초래하게 된다. 상이한 이해관계, 법률, 관세들을 갖던 지방들은 철폐되고, “하나의 국민,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률, 하나의 전국적 계급 이해, 하나의 관세 구역으로의 통합”이 일어난다[네이션의 탄생]. 인구집단의 균질화와 더불어 대의제가 만들어지고, 부르주아지는 이러한 “현대 대의제 국가에서 배타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한다.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장악한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가 된다(선집, 402).

셋째, 사회의 영역에서. 부르주아지는 봉건적, 가부장적, 목가적 관계들을 파괴한다. 부르주아지는 인간 사이의 봉건적 관계들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며 그것을 “냉혹한 현금 계산”으로, 다시 말해 화폐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이와 더불어 인간관계를 감돌던 온갖 주술적 요인들이 파괴된다. “부르주아지는 신앙적 광신, 기사적 열광, 속물적 감상 등의 성스러운 외경을 이기적 타산이라는 차디찬 얼음물 속에 집어 넣어버렸다.” 지위나 직업을 둘러싼 ‘신성한 후광’은 모두 제거된다. “부르주아지는 의사,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를 자신들의 유급 임금 노동자로 바꾸어 버렸다.”(선집1, 403)

넷째, 정서의 영역에서. 새로운 상품은 새로운 욕구에 상응하고 새로운 욕구는 또한 새로운 상품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국산품에 의해 충족되었던 낡은 욕구들 대신에 새로운 욕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욕구들을 그 충족을 위하여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들 및 풍토들의 생산물을 요구한다.” 세계시장의 창출과 함께 욕망 또한 세계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산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서의 영역에서도 생산과 소비는 세계화된다. “개별 민족들의 정신적 창작물은 공동재산”이 되고, “민족적 일면성과 제한성은 더욱 더 불가능”해지며, “많은 민족적, 지방적 문학들로부터 하나의 세계문학이 형성된다.”(선집1, 404)

## 4. 생산력과 프롤레타리아트

### —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매장인을 만들어낸다 ..

부르주아지의 생산은 그런데 하나의 ‘역설’에 부딪힌다. 아니, 부르주아지는 하나의 역설을 생산한다. 최고의 기괴한 역설.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죽음’을 생산한다.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부를 안겨 준 것이 그에게 죽음 또한 안겨준다.

맑스는 부르주아지를 감당 못할 힘을 저승에서 불러낸 마법사에 비유한다. 이 비유는 일단 부르주아지가 발전시킨 생산력을 지칭한다.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 및 교통관계들, 부르주아

20) 맑스는 유럽의 상품이 만리장성을 넘는 것과 함께 중국의 혁명이 유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중국혁명과 유럽혁명>, 선집2). 그는 중국의 ‘인민공화국’으로의 재편에 대한 흥미로운 예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곧 임박한 아시아로의 도망에 직면하여 우리 유럽의 반동배들이 마침내 만리장성에 간신히 도착해서 근원적 반동(Urreaktion)과 근원적 보수(Urkonservatismus)의 성채로 통하는 문 앞에 섰을 때 다음과 같은 표제를 읽지 않게 될지 그 누가 알겠는가. <중화공화국 자유 평등 박애> London, 31. Januar 1850.” (MEW, VII, S. 222)



적 소유관계들, 즉 그토록 강력한 생산수단과 교류수단을 마법을 써서 불러내었던 현대 부르주아 사회는, 주문을 외 워 불러내었던 저승의 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마법사와 같다.”(선집1, 405) 공황, 즉 위기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주기적으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외적의 침입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너무 많은 문명, 너무 많은 생활수단, 너무 많은 공업, 너무 많은 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산력들은 이 관계들[부르주아적 소유관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력 해져 있어서” 이 관계들을 방해물로 느끼기 시작한다(선집1, 406).

맑스는 생산력과 소유관계의 모순, 특히 생산력의 발전이 그것에 조응하지 못한 소유관계를 깨뜨려 온 것으로 역사를 설명하기도 한다(선집, 405). 이를테면 봉건 사회 내에서 일정한 생산수단과 교통 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봉건적 소유관계들이 더 이상 그것들에 조응하지 않는 시점이 와서 그것이 분쇄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역사는 “소유관계들에 대한 생산력들의 반역의 역사”이다(반역자로서 생산력!).

부르주아지에게 죽음을 안길 또 하나의 생산물은 주체, 즉 프롤레타리아트이다. “부르주아지는 자 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무기들을 베풀어 낸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이 무기를 쓸 사람들도 만들어내었다

—현대의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을.”(선집1, 406) <<선언>>은 프롤레타리아트를 19세기 노동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다.<sup>21)</sup>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의 발전과 함께 증대한다. 게다가 현대의 대 공업은 노동자 대중을 조직화해준다. 물론 공장에 집결된 노동자 대중은 군대식으로 조직되며 완전 히 위계적인 감시 체계 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들이 공업의 발전과 함께 양적으로 증대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처음에는 개별 부르주아에 저항하는 개별 노동자에 불과했고, 다음에는 부르주아지가 동원한 대상으로서 노동자 대중이지만, 이해관계가 점차 통일되고, 집합적으로 부르주아지에 대항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다. 게다가 부르주아지가 창출해 놓은 전국적, 세계적 교통 형태는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용이하게 만든다. 투쟁은 자주, 일시적인 패배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교통과 연대, 단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그들의 투쟁의 진정한 성과는 직접적인 전과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확대되는 단결이다.”(선집1, 409)).

부르주아지의 상호경쟁, 외국 부르주아지와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부르주아지들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계속해서 집합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색채를 부여할 수 있는 운동 에 끌어들이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부르주아지 스스로 자신의 매장인을 만드는 일이 된다.

맑스는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며 낳은 역설적인 결과물, 생산력과 프롤레타리아트를 동일한 차원에서 이야기하곤 했다.<sup>22)</sup> “노동자들은 기계 자체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발명

21)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 19세기 유럽에서 둘의 내포와 외연이 상당부분 겹친다고 해도, 맑스에게 두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특히 <<자본>>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선언>>에서는 일단 “현대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이라고 동격 으로 표현하고 있다. 엥겔스는 <공산주의 원칙들>에서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프롤레 타리아트는 항상 존재한 이들이 아니라 ‘19세기의 노동계급’이라고 못박고 있다(선집1, 321).

22) 맑스는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말했지만 또한 기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결합 또한 내비쳤다(자본주의 체 계에서는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그는 <<선언>>의 끝부분에서 ‘사슬’에서 풀려나야 할 존재로 프롤 레타리아트를 묘사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생산력을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맑스가 볼 때 노동자와 기계는 현대의 똑같은 자식들이다.“그들[영국의 노동계급]은 이제 또 다른 조건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를 생 산하는 저 힘을 독점의 수치스러운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품입니다.” 맑스가 혁명 세력으로서, 다시 말해 부르주아지의 장래를 치를 존재로서 주목한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내부에서의 와해적 요소”<sup>23)</sup>이기 때문이다. <<선언>>의 저자들이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배제된 이가 아니라, 19세기 노동자계급을 프롤레타리아트로 지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 다. 여기서 사회형태를 분석하는 맑스의 독특한 시각이랄까, 방법론이랄까 하는 게 잘 드러난다. 그는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에서 해체 요인을 발견하고,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멸망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cf. 역설의 변증법).

참고로 <<선언>>은 ‘혁명의 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 짧은 언급을 하고 있다. 저자들은 공산주의자의 당면 목적을 이렇게 3단계로 요약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으로의 형성, 부르주아지 지배의 전복,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선집1, 413) 뒤쪽에 가면 이 과정을 더 풀어서 설명한 구절도 있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만들고, 또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들을 폭력 적으로 폐기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생산관계들과 아울러 계급 대립의 존립 조건들과 계급 이반을 폐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계급으로서의 자기 자신도 폐기하게 될 것이다.”(선집1, 421)

나중에 맑스와 엥겔스는 이 단계론에 두 가지 중요한 수정을 가한다. 첫 번째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에 의해 자동 적으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맑스와 엥겔스는 ‘파리 코뮌’의 경험을 통해 국가 기구가 단순히 장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1872년(파리코뮌을 경험한 직후이다) <<선언>>의 독일어판에 붙인 서문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코뮌은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국가 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선집1, 370)

또 하나 중요한 수정은 역사의 이행 단계론 자체에 대해 이루어졌다. 맑스와 엥겔스는 러시아 사회에서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봉건제에서 부르주아 사회로, 다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단순 단계론 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sup>24)</sup>. <<선언>>의 러시아판 서문(1882)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우리는 급속히 번창하는 자본주의로 인한 현 기증과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부르주아적 토지 소유의 맞은 편에 절반 이상의 토지가 농민들의 공동 점유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비록 토지의 원시적 공동점유의 심하게 붕괴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오브쉬치나(Obschtschina)는 공산주의적 공동 점유라는 보다 높은 형태로 직접 이 행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서구의 역사발전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해체 과정을 먼저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결론

힘들을 생산자들의 공동의 통제 아래 복속시 켜야 합니다.”(<노동자 의회에 보내는 서한>(1854), 선집2, 428)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계의 파괴적 영향을 지적하며 “현대의 기술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모순들에 흔적을 남기는 간교한 정신”을 놓치지 말라고, 기계를 새로운 인간들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임을 말했다. 그는 심지어 기계를 “위험한 혁명가”라고 부르기도 했다(“증기, 전기, 자동 물 방적기 등은 심지어 바르베, 라스뻬이유, 블랑끼보다도 더 위험한 혁명가들이었습니다.”)(<런던 <<인민신문>> 창간 기념 축하회에서 연설>(1856), 선집2, 431)

23) 맑스는 이 표현을 “비판적-공상적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사용했다. 이들이 “계급들의 대립과 지배적 사회 자체 내부에서의 와해적 요소들의 작용을 보고 있는 하다”고(선집1, 429).

24) 맑스는 이 문제를 러시아 맑시주의자 자술리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상세히 검토했다(K. Marx, “Brief an V.I. Sassulitsch” (Erster/Zweiter/Dritter Entwurf), MEW 19).

에 도달했다. “러시아의 혁명이 서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호가 되어, 그리하여 양자가 서로를 보완한다면, 현재 러시아의 토지 공동소유는 공산주의적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선집1, 372) 이것은 역사적 이행과 관련된 서구적 경로를 다른 지역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역사 자체가 단선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혁명의 적절한 시발점이 따로 있지 않다는 점<sup>25)</sup>)을 말해주기도 한다.

## 5. 결별 - 혁명에서 잃을 것은 식사슬 뿐..

내 생각에 <<선언>>의 백미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 사슬을 끊어대는 대목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르주아 사회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상실을 상실케 함으로써’, ‘결핍을 결핍하게 만듦으로써’ 기묘한 논리적 역전을 이뤄내는 대목이다.

<<선언>>의 논리를 따라가보자. 일단 <<선언>>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낡은 사회의 생활조건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 조건들 속에서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재산이 없다;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의 관계는 부르주아적 가족관계와의 공통점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현대의 공업노동, 즉 자본 아래로의 현대적 예속은 ... 프롤레타리아에게서 일체의 민족적 성격을 빼앗아 버렸다. 법률, 도덕, 종교 등은 프롤레타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뒤에 많은 수의 부르주아적 이해관계들을 숨기고 있는 그만큼 많은 부르주아적 편견들이다.”(선집1, 410-411) 요컨대,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재산이 없고, 가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며, 자신을 위한 법률, 도덕, 종교가 없다.

이 각각의 조건들과 관련해서 <<선언>>이 만들어낸 기묘한 역설을 보자. 먼저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재산이 없다. 공업의 진보와 자본의 축적은 프롤레타리아를 부유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깊은 궁핍으로 몰아넣는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을 더 큰 궁핍으로 몰아넣는 조건에서만 부르주아 사회의 부를 생산한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프롤레타리아트에게도 사유재산을? 그렇지 않다. <<선언>>은 공산주의자가 요구하는 것이 분배 몫의 확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언>>이 요구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결핍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 <<선언>>은 오히려 부재 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들은 우리가 사적 소유를 폐기하려 한다고 해서 놀라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의 현존 사회에서 그 사회 성원의 10분의 9에게서는 [이미] 사적 소유가 철폐되어 있다.”(선집1, 415)

이 독특한 어법은 가족 문제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족은 사실상 해체되어 있다. ‘현대의 가족’은 “자본에, 사적수익(Privaterwerb)에” 근거한다. “그것은 오직 부르주아지에게 있어서만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들의 부득이한 독신 생활과 공인된 매춘 속에서 그 보완물을 발견한다.”(선집, 1, 417).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구성이 아니라 해체이다(선집1, 416). <<선언>>의 저자들은 가족에

25) “러시아 혁명이 서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호가 되어”라는 <<선언>>의 러시아판서문(1882)의 표현을, <헤겔법철학비판서설>(1844)에서의 “갈릴리의 수탉의 울음소리에 의해 고지”라는 표현, 그리고 1848년 혁명의 패배 이후 영국에서의 혁명없이는 세계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유럽대륙 전체에서의 그런 변혁도 영국에서의 변혁없이는 찻잔 속의 폭풍”이라거나(<혁명운동>(1849)) 등과 비교해볼 수 있다.

대한 부르주아적 미사여구에 구역질을 느낀다.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가족적 유대가 대공업에 의하여 찢겨질수록, 어린이들이 단순한 상업적 품목이나 노동 도구들로 바뀌어버릴수록, 가족, 교육,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한 관계에 대한 부르주아적 미사여구들은 더욱더 구역질나는 것으로 된다.”(선집1, 417)

26) 부르주아의 가족은 위선적이다. 부르주아들은 공산주의를 ‘부인공유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을 상품화해서 사실상 부인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다<sup>27)</sup>.

다음으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 부르주아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국민성[민족성]을 파괴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선집1, 418). 국가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일 뿐이기에(선집1, 402)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자신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인민들이 민족적으로 분리되고 대립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국민국가[민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출현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국민적’인 경우는 오직 자신이 처해 있는 나라에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도, 민족도 폐지할 것이다. 이는 <<선언>>의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공명한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sup>28)</sup>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매력없는 부르주아지 세계! <<선언>>의 혁명성은 여기에 있다. 부르주아지 세계에서 아무런 매력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 말이다. 부르주아지 세계에는 가지고 싶은 것이 없다. 따라서 강도처럼, 주머니칼을 들이밀며, 무언가를 빼앗을 것이 없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를 위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zittern)”는 선언의 문구는 사실 위협의 문구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더 근본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부르주아지를 위협보다 더 깊은 위험 속에 빠뜨린다.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가 요구하는 것은 부르주아가 구축한 ‘세계의 몰락’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혁명은 상대에 대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 상대와의 철저한 결별, 부르주아지가 구축한 세계로부터의 철저한 탈주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혁명은 … 가장 철저한 결별(das radikalste Brechen)이다.”(선집1, 419)

<<선언>>의 더욱 위대한 점은 이 결별 선언을 너무나 경쾌한 문체로 전한다는 사실이다. 비

26) 맑스는 <<자본>>에서 기계제 대공업 하에서 프롤레타리아 가정의 파괴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성인노동자는 술이나 아편에 취해 있는 노예상인처럼 등장하고(“종전에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했으며, 이를 형식상 자유로운 인격으로서 처분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처자를 판매한다. 그는 노예상인이 된 것이다.”(강신준 옮김, <<자본>> I, 도서출판 길, 535쪽)), 여성과 아이들은 과로에 시달린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품교환의 전제인 자유로운 인격의 당사자도 아닌데 부모에 의해서 팔려간다. 여성들의 과로는 유아들의 조기사망율의 증대를 초래했으며, 일찍부터 공장에 투입된 아이들의 정신적 황폐화가 나타난다.

27) 엥겔스는 <공산주의의 원칙들>(1847)에서 공산주의적 사회질서가 가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사회질서는 남녀관을 사회적 간섭을 배제한 당사자들만의 순전히 사적인 관계로 만든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적 소유를 제거하고 자녀를 공동교육[양육]함으로써 결혼의 두 가지 기초인, 사적 소유로 인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종속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종속을 없애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지들이 욕하는 공산주의의 부인공유제는 근거없는 것. 오히려 그것은 부르주아사회에 속하는 일로, 바로 매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매음은 사적 소유에 근거하기에 그것과 함께 없어질 것. 따라서 공산주의적 조치는 여성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지하는 것(선집1, 336).

28)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의 조국을 ‘만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만국’은 조국, 즉 국민국가와 연합을 지칭하지 않는다. ‘조국을 상실한 자들의 나라’라는 점에서 ‘만국(萬國)’은 ‘무국(無國)’과 같다. 국가의 땅이 ‘영토’라면 만국은 영토 이전의 ‘대지’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맑스는 당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유행하던 구호인 ‘모든 인간은 형제다(all men are brothers)’를 경멸했다.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구호를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로 바꾸었다(cf. 프랜시스 윈, <<마르크스 평전>>, 158쪽).

장함은 상실과 결핍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선언>>을 지배하는 문체는, 비유컨대, 족쇄만 풀면 금세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새와 같은 인상을 준다. 잃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공공연하게, 기존 세계의 몰락을 촉구하는, 그리고 온 세계를 요구하는, 대담하고도 경쾌한 선언! 그것이 <<선언>>이다.